

# “깍뎀기 미래부 될라” vs “방송장악 시도 중단”

## 여야, 정부 조직개편 방통위 기능 이관 놓고 공방 계속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핵심 쟁점인 방통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부를 사실상 깍뎀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은 지금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정부 조직을 승인하라고 ‘끼워팔기’하고 정부 조직법을 심의하는데 국정조사, 언

론청문회를 하자며 “재고탈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전조정위 기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노골적인 발목잡기”라며 “곧(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니 내부 투쟁용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공세했다.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지침을 핑계로 협상을 회피했다”며 “이제 협상을 진행하자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후진화할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회범 경총 회장이 인사말에 앞서 박 당선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항명 목소리가 나온다”며 “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관을 꺼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항명 목소리가 나온다”며 “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관을 꺼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야당과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조직법 협상에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 정책을 독인제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 이관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과거의 공보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화 의원은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 정책을 독인제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 이관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과거의 공보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몽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과 관련해 “일을 잘하려다 보니 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준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국은 다시 갈등과 대립의 구도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정국의 혼란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여당의 자체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 정책을 독인제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 이관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과거의 공보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수위, 새정부 국정과제 막판 손질

### 광주·전남지역 공약 반영여부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막판 수정·보완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약과 지역발전 공약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특히 공약 세부이행 계획 가운데 164개를 올해 상반기에 먼저 실행하는 방안을 세웠는데 이를 더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 주요 업무 가운데 남은 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해 발표하는 것인 만큼 마지막 손질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국방비 증액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복합,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공공기관 부채 절감,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이 제시된 전망이다.

인수위는 애초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박 당선인의 국정과제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때문에 발표일을 21일로 하루 늦췄다.

또 인사에서 소의를 받은 호남 지역의 공약이 공약 세부이행계획 가운데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인수위는 21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정권 인수 업무를 종료할 예정이다. 인수위 해산식은 22일 열린다.

또 인사에서 소의를 받은 호남 지역의 공약이 공약 세부이행계획 가운데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인수위는 21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정권 인수 업무를 종료할 예정이다. 인수위 해산식은 22일 열린다.

또 인사에서 소의를 받은 호남 지역의 공약이 공약 세부이행계획 가운데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인수위는 21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정권 인수 업무를 종료할 예정이다. 인수위 해산식은 22일 열린다.

또 인사에서 소의를 받은 호남 지역의 공약이 공약 세부이행계획 가운데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 ‘12일만의 외출’ 박 당선인 ‘경제·노동행보’ 초점 선제적 환율정책·중소 지원 강조

새 정부의 조각(組閣)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외부 일정을 재개했다. 이후 박 당선인의 행보는 ‘경제’와 ‘노동’에 맞춰질 것이라 개 박 당선인 주변의 전언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에 이어지는 ‘경제행보’다. 설 직전인 지난 8일 서울 중곡시장 방문 후 12일만의 ‘외출’이기도 하다.

## 대구 TP 골프 접대 인수위 직원 등 적발

국회 예산심의 등과 관련해 대구테크노파크(TP)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통령직 인수위 직원 등 모두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에 이어지는 ‘경제행보’다. 설 직전인 지난 8일 서울 중곡시장 방문 후 12일만의 ‘외출’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에 이어지는 ‘경제행보’다. 설 직전인 지난 8일 서울 중곡시장 방문 후 12일만의 ‘외출’이기도 하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대구TP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국회예산 심의와 관련, 대구TP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국회의원 4급 보좌관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류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업지원’과 ‘노동’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 출범 초 이 분야의 현안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또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위한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목표 아래 함께 사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했다.

이들 중 한모(50)씨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3대 난제를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으로 꼽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

히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엔저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들은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에 산증여와 관련해 국회의원 등에게 설 명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2011년 사이 수차례의 국내외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아 경건 혐의를 받고 있다.

# 민주 내홍 격화... ‘배가 산으로 가나’

## 비대위 5월전대 반발 시도당위원장 오늘 긴급 의총 장병완 의원 “당 갈등 확산 원치 않는다” 불참 의사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의 내홍이 본격화되고 있다.

패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제3의 안을 채택한 무책임한 행태는 원만한 전대를 위해서도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 20일 전국 시도당위원장이 비대위의 정기 전당대회 개최 결정에 공개 반발한 것은 물론 21일에는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다.

이어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가 마련한 합의안을 무시했다”며 “이를 존중하라는 사·도당위원장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65%가 임시전대를 지지한 중앙위원 여론조사 결과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16개 시·도당위원장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5월초 정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비대위 위원회 결정에 대해 “당원의 뜻을 무시한 전횡”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대 준비를 위한 공식 기구인 전대 준비위와 당의 중장기 혁신안을 만드는 임시기구인 정치혁신위의 마찰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공식기구인 전대 준비위의 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는 22일 당무위, 27일 중앙위를 각각 열어 ‘5월 초 정기전대 개최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정면 충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장병완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장 위원장 측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갈등이나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사실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의 결정에 대한 성토가 잇따를 전망이다.

김영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사실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주류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정치혁신위에 휘둘러지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의 결정에 대한 성토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맞서 주류 측에서는 비대위 결정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는 22일 당무위, 27일 중앙위를 각각 열어 ‘5월 초 정기전대 개최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정면 충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이동지도사	3.7(목)오전	•한자의 기본원리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부수해설·사자소학 •명성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소학·대학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훈장)	3.6(수)오전	•논어·맹자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자격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총합 175375-56-065137(이중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

##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4667-9300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인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다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

---

## 매매

##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